

# “서울-용산역 구간 지하화... 유라시아 철도 시작역 될 것”

##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주말 행보

### 첫 주말 유세 초점 ‘시민·평화’ 문익환 100주년 행사 등 참석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6·13 지방선거 첫 일요일 유세의 초점을 ‘시민’과 ‘평화’에 맞췄다.

박 후보는 3일 오전 첫 일정으로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서 사회경제인과의 공감토크에 나섰다. 캠프 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안국빌딩에서는 ‘시민공감 대변인단 발족식’을 열고 대변인단을 홍길동의 변신술에 비유해 격려했다.

오후에는 서울역에서 열린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평양 가는 기차표를 다오’ 행사에서 문재인정부의 대북 평화정책을

서울시가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박 후보는 “1989년 문익환 목사가 ‘잡포대 아닌 잡포대’라는 시에서 서울역에서 평양 가는 기차표를 내놓으라고 막 조르는 장면이 나온다”며 “(남북 정상회담의 경의선 복원 합의에 이어) 북미정상회담까지 잘 완성되면, 문 목사의 잡포대는 현실로 다가오게 되어있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어 “서울역은 유라시아 횡단 철도, 아니면 중국 횡단 철도의 시작점이고 종착역이 될 것”이라며 “국토부와 함께 여기서부터 용산역까지 지하화하고 그 지상을 여러가지 철도편의시설, 관광지역으로 만드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 운전해 주시면, 평양까지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3일 오전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서 사회경제인과의 공감토크에서 인사하고 있다. /박원순 캠프

생겨날 것이고, 중·고등학생들이 유라시아 철도로 베를린까지 수학여행 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서울·평양 교류 활성화 공약으로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 서울·평양 공동개최 추진 ▲경평축구 부활 ▲서울·평양 간 도시 협력 ▲서울·평양 문화예술 교류를 내걸었다.

서울과 평양의 도시 인프라 협력을 위해 평양 상하수도 개량하고, 대중교통 운영체제 협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식생동물 종자교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예술교류로는 서울시향과 조선국립관현악단의 합동 공연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서울·평양 아트 비엔날레’를 추

진하고, 두 도시의 문화유산답사 프로그램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결정 공약으로는 ‘시민과 함께 결정하는 열린 파트너십 정부’와 ‘시민 정책 참여 플랫폼의 확대·활성화’를 내세웠다.

박 후보는 열린 파트너십을 위해 ▲시민 참여와 역할을 확대하는 재정민주주의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시 예산의 5%를 시민이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만들고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가 거시적인 사회적 협약을 맺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시민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서울난제 해결을 위한 시민속의·공론장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 활성화와 지식연구협력의 ‘개방형 사회의제 플랫폼’을 구축·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이범종 기자 joker@metroseoul.co.kr

## 쓰레기 매립장서 생태공원 되기까지

# “월드컵 공원 변천사 무료 투어하세요”

### 8일부터 ‘이야기 해설’ 운영 역사·생태·재생 3개 프로 구성

서울시가 이달 8일부터 11월 24일까지 ‘월드컵공원 이야기 해설’을 운영한다.

해설은 과거 쓰레기 매립지에서 현재 생태공원이 되기까지 월드컵공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이야기를 담은 해설 프로그램이다. 시는 역사·생태·재생 등 3가지 관점으로 월드컵공원을 알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역사적 관점의 ‘마음여행 -난지도 일기’는 아름다운 꽃섬 시절부터 쓰레기 매립지, 매립장 안정화공사를 거쳐 현재 월드컵공원으로 조성되기까지의 변천사를 알려준다.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매립가스 발생현황, 침출수 처리현황, 쓰레기 처리 미 위해 흙 등으로 복토하는 과정과 공원으로 개원한 후 현재까지 매립지의 안정

화모습을 모니터링한 결과 값까지 데이터 중심으로 설명한다.

시는 폐기물 처리와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고자 월드컵공원을 방문한 해외 공무원은 지난해 1175명으로, 이들 모두 이 해설 프로그램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시는 프로그램을 대학교와 국내외 공공기관 견학코스도 추천한다. 사전 신청은 공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생태적 관점의 ‘비밀여행 -누가 살고 있을까’는 난지도의 옛날이야기와 더불어 ‘귀화식물’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초·중학생 맞춤형 견학 프로그램이다.

귀화식물은 매립가스와 침출수, 건조한 토양환경 등 생물환경이 열악한 매립지를 생태공원으로 이루는 역할을 했다. 견학생은 현재 독특한 매립지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현장을 직접보고 체험할 수 있다.

학교 단체 프로그램은 최대 30명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일반 가족단위는 최대 20명 격주 토요일 10시에 운영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재생적 관점의 ‘기억여행 -응답하라 1978’은 공원형 도시재생 사례인 월드컵공원과 문화비축기지를 연결해 돌아보는 다크투어 코스다.

월드컵공원은 과거 약 100m 높이의 거대한 쓰레기 산이었고, 문화비축기지는 비상시를 대비한 1급보안 석유저장 시설이었다. 과거 아무도 찾지 않던 이 두 곳의 어두운 과거를 알아보고 함께 걸으며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9일부터 격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운영된다. 일반인 누구나 20명(회당)까지 참여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다.

프로그램 참여는 서울의 산과공원 누리집(<http://parks.seoul.go.kr>)과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누리집(<http://yeeyak.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이범종 기자

## 21~24일 음악축제 ‘창동 걸쳐 스테이션’

### 플랫폼창동61 개장 2주년 기념

서울시가 음악축제 ‘창동 걸쳐 스테이션’을 21일~24일 플랫폼창동61과 창동시립운동장에서 개최한다.

플랫폼창동61 개장 2주년 기념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DMZ 피스트레인(Peace Train) 뮤직페스티벌’과 연계해 같은 기간 개최된다. 입장료는 전석 무료다.

21일 열리는 콘퍼런스 ‘음악은 피스트레인을 타고’라는 주제로 프레젠테이션(4회)과 라운드테이블(3회)로 진행된다. 축제 공동 조직위원장이자 세계적인 축제 기획자 마틴 엘본을 비롯해 아티스트, 사회학자, 평화운동가, 음악산업 관계자 등 총 13명의 연사가 나선다.

22일에는 ‘DMZ 피스트레인X플랫폼창동61 쇼케이스’가 플랫폼창동61 내 레드박스에서 열린다. 이 공연은 플랫폼창동61을 대표하는 입주·협력 뮤지션 3팀과 페스티벌 무대에 오르는 뮤지션 2팀의 무대로 꾸며질 예정이다.

23일에는 창동시립운동장에서 피크닉을 콘셉트로 한 야외무대 공연이 오후 5시부터 펼쳐진다. 이날 공연에는 국내 뮤지션 ‘10CM’, ‘잔나비’와 스코틀랜드 출신의 얼터너티브록 밴드 ‘겨자대령과 디종’이 무대에 오른다.



같은 날 플랫폼창동61에서는 ‘동북4구(성북·강북·도봉·노원) 도시재생과 관련해 북콘서트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열린다.

북콘서트에는 ‘도시의 발견’의 저자인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서울은 깊다’의 저자 전용웅 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소 교수가 참여한다.

축제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플랫폼창동61 입주·협력 뮤지션인 ‘브로큰렌타인’, ‘에이프릴세컨드’, ‘트리스’ 3팀의 기획공연이 열린다. /이범종 기자

## 매월 둘째주 화요일 ‘섬 음악회’ 연다

### 서울시, 홍건익 가옥서 30분간

서울시가 역사가옥인 ‘홍건익가옥’에서 ‘정오의 휴식: 섬 음악회’를 올해 12월까지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오후 12시 20분에 연다.

음악 장르와 곡목은 그 달의 성격과 계절에 따라 결정된다. 공연은 30분간 열린다. 공연은 가옥의 뒤뜰, 안채 등 다양한 공간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주민과 주변 직장인을 비롯해 방문객 등 누구나 사전 예약 절차 없이 관람할 수 있다.

5월 시작되는 ‘6월 음악회’는 ‘양상블 IF팀’이 출연해 지난 ‘남북정상회담’ 환영 만찬서 오연준 군이 부른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공연한다. 또한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처럼 봄과 여름 사이의 계절감을 담은 공연을 선보인다.

8월 음악회는 ‘여름방학 특집’으로 열린다. 10월에는 가을 감성이 담긴 클래식 공연이 진행된다.

홍건익가옥은 1930년대 근대한옥의 특징을 보여주면서 전통방식을 수용한 면모가 혼합된 건물이다. 가옥은 언덕의 단



차를 이용하여 5개 동의 공간 분할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배치되어 있다. 일각문과 전통 우물까지 완전하게 보유하고 있는 서울 시내 유일하단 대한옥이다. 가옥은 건축 세부가 뛰어나다는 점을 인정받아 2013년 시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다. 2017년부터 역사가옥으로 운영되는 이곳은 지난 4월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이 민간위탁을 맡고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홍건익가옥 ‘정오의 휴식’ 음악회를 시작으로 홍건익가옥이 주민과 일반시민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성과 가옥의 정체성에 부합한 공공한옥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범종 기자

## 88 올림픽 30주년 기념 손기정 평화마라톤대회

### 서울시, 10월3일 개최

서울시가 10월 3일 올림픽주경기장에서 ‘2018 손기정 평화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마라톤은 88서울올림픽 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행사로,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손기정기념재단이 함께 준비한다.

대회는 손기정 선수의 업적과 정신을 기념하기 위한 동호인 마라톤이다. 2005년부터 시작돼 매년 1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 대회다.

시는 서울올림픽 30주년을 기념해 각종 부대행사를 마련한다. 대회 참가인원도 2만명 이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서울올림픽 30주년 부대행사로 는 서울올림픽 특별전시회, 공식 캐릭터 호돌이 특별전, 손기정 특별전시회 등 다양한 시민참여 이벤트가 마련된다. /이범종 기자

## ‘車 친환경 라벨’ 디자인 시민의견 반영

### 서울시, 내달부터 상위등급에 부착

서울시가 자동차 친환경등급 라벨 디자인을 시민과 함께 결정한다.

환경부는 지난 4월 25일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발표·고시했다. 정부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1~5등급)으로 분류함에 따라, 현재 제작되거나 운행중인 모든 차량은 각 등급에 속하게 된다.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구분되는 라벨을 부착하고,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한다.

시는 큰 틀에서 친환경 상위등급차량(1~2등급)에는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혼잡통행료 면제 같은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를 검토한다. 하위등급차량(5등급)은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운행제한 등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1~2차에 걸친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시민 의견이 반영된 라벨 디자인을 선정·제작할 계획이다.

시는 누리집을 포함한 전자설문시스템과 시내 주요 거점에서 1차 온·오프라인 사전조사를 지난달 28일부터 6일까지 진행한다. 사전조사에서 높은 득표를 한 모양을 중심으로 명칭, 등급별 색상 등을 확정하고 디자인을 제작해 이달 중 2차 시민선호도를 진행한다.

시는 빠른편 7월부터 친환경 상위등급 차량(1등급)인 전기차·수소차량부터 우선적으로 라벨 부착을 추진할 방침이다. 향후 1~2등급 차량(하이브리드·휘발유·가스차량)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범종 기자